

데스크시각



홍행기 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는다. 사람으로 치면 불혹(不惑)의 나이에 접어든 셈이다.

공자는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서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15세가 되어 학문에 뜻을 두었고(志學) 30세에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으며(而立) 40세가 되어서는 미혹하지 않았고(不惑) 50세에는 하늘의 명을 알았다(知天命). 60세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고(耳順) 70세에 이르러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從心).”

공자의 통찰이 맞다면 5·18민주화운동은 불혹을 맞아 ‘잡다한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는 일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 1980년 5월 광주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 1980년 5월 광주의 차가운 대지에 열사들의 뜨거운 피가 스며든 뒤 40년이 흐른 지금, 5·18민

흔들리지 않는 5·18

주화운동은 국내외에서 ‘군부독재에 저항해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한 시대정신’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위상을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르다. 우선 일부 보수·극우세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 파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자리에서 극우 인사 지만원은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는 중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는 망언을 쏟아 냈고,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면서…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왜곡과 폄훼 여전하지만

극우 보수 세력이 앞장 선 이러한 5·18왜곡·폄훼 망동에 일부 보수 정치권은 뒤에서 힘을 실어 주었다. 최근 자유연대를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 단체와 유튜브들이 광주시청과 5·18기념문화센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유

공자 가운데 진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며 5·18유공자를 ‘폭도’라고 지칭하는 등 막말을 한 것은 이 같은 ‘짜고 치는’ 망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문제는 정치다. 한 줌도 안되는 극우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5·18정신을 흔들며 뒤흔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의 망동을 묵인하고 방조해 온 보수 정치권이 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처벌 법안 7건이 대부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나,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8건의 법안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5·18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우 보수 정치 세력의 저항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을 막기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관련 상임위에 포진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을 비롯

한 진보 정당만으로는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야당 텃밭 할 수는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민주시당만이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하는 등 범 진보 진영이 전체 300석의 의석 가운데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데다, 극우 보수 세력과 함께 5·18 폄훼·왜곡에 앞장섰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에 의해 모두 퇴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야말로 5·18 진상 규명은 물론 5·18정신의 전국화, 세계화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후면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40주년 5·18기념식이 진행된다.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이 ‘망언과 왜곡에 흔들리지 않는’, 무등산처럼 굳건한 5·18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은펜칼럼

도서관에도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필요하다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광산구 순회사서

대중화에 따라 차량을 소유한 드라이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마련된 시설인 드라이브 인은 원래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다’란 뜻이다. 풀이하자면 자동차를 탄 채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다거나 은행에 들어가 일을 본다는 의미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문한 음식을 받아서 나오는 테이크아웃(takeout)이나 ATM기를 이용한 입출금 형태만 단순히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체 채취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량의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실내에서 검체를 채취할 때보다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속속 검체 채취를 위해 도입하기 위해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시책을 전환하고 클럽 등 유흥시설 등에는 운영 제한 행정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드라이브 스루는 여러 분야에서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다.

농·수·축협은 위축된 농·수·축산물 소

비를 축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차에 탄 채 각종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판매 방식을 도입해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 지역 백화점도 드라이브 스루를 활용한 이동형 쇼핑을 도입했으며, 군산시 아이맘스 카페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 안심 대어 서비스를 실시했다.

광산구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장덕도서관을 비롯 책담, 이야기꽃, 윤남, 신가도서관 등에서 북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는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정보 욕구에 메달라하는 이용자들에게 대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광산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원하는 책을 미리 예약하고 다음 날 예약 시간대에 자가용으로 이용, 도서관에 도착하면 현장에서 사서가 비닐팩에 담아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워킹 스루 서비스’인 것이다.

드라이브 스루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단지 신속하고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연구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지하철 1호선 송정공영역과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무인 자동화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인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의 하나로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북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도서관 신속 시부터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 웨이’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느 때나 시간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신분 확인을 통한 비대면 접촉으로 대출 반납을 자유로이 실행할 수 있는 셀프 도서관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만약은 우리에게 낯선 시설로 생각되지만 도서관에서 드라이브 스루의 활용은 인구 밀도가 높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많은 우리 환경에서 폭넓게 반영될 것이며 편리한 서비스 형태로 국민 독서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社說

대통령 공약 지역 현안 실현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가운데 80% 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굵직굵직한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과 숙원 사업들은 이렇다 할 진척 없이 걸돌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59개 가운데 한전공대 설립 등 6개는 추진이 완료됐고,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와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2단계 건설 등 43개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10개 사업은 3년이 지나도록 어려움을 겪으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이전 대상지인 전남 지자체의 반발이 큰 데다 특별법에 규정된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는 대신 현 군 공항 부지를 군으로부터 받아 개발하는 방식인데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국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5

·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 지역의 흑산공항 건설 역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항 건설을 위해선 환경부 국립공립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개발·보존 논쟁으로 5년째 발목이 잡혀 있다. 이를 포함해 지연되고 있는 전남 지역 공약 사업은 서남해안권 해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 개발 등 아홉 건에 이른다.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법률 개정 등이 절실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 재탄생한 만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도는 정부와 국회 설득을 위한 치밀한 논리 개발로 남은 기간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태원발 쇼크 ‘등교 개학’도 미뤄졌다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가 어제 100명을 넘어지면서 전국에 2차, 3차 감염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등교 개학’ 일정이 일주일씩 순연된다. 13일로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는 20일로 조정되었으며 20일로 예정됐던 고2와 중3, 초1·2학년과 유치원 등교는 27일에 이뤄진다. 고1, 중2, 초3·4학년은 내달 3일, 중1, 초5·6학년은 가장 나중인 내달 8일에 등교한다. 집단 감염이 확산될 경우 ‘등교 개학’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불안감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전남 원어민 강사와 교직원 58명이 최근 서울 이태원과 흥대 일대를 다녀온 사실이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두 명이 클럽을 방문했다.

광주에서도 93명이 이태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원어민 강사 일곱 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해당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어민

강사가 서울을 다녀왔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않겠지만 학교나 학원으로서의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태원 클럽과 주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문자 신원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사실까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이태원 클럽 이용자는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무증상 감염자’로 전국을 활보할 경우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럽 방문자들은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 및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지역 사회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無等鼓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접촉을 의미하는 ‘컨택트’(contact)에 부정의 뜻을 가진 접두사 ‘언’(un)을 붙인 신조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지 않는 비대면(非對面)을 뜻한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보통신(IT)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비대면 소비 경향과 관련 업종의 확산을 보여 주는 이 신조어는 2년 전쯤 만들어졌는데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압축하는 유행어가 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뿐만 아니라 쇼핑과 각종 문화생활을 온라인으로 즐기는 언택트 문화가 급속히 뿌리내리고 있다. 해외여행도 세계의 하늘길이 모두 막히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랜선 여행’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람과의 접촉이 적고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이른바 ‘언택트’ 관광도 활성화되고 있다.

언택트는 코로나 이후 접촉 불안이 가

져 온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비롯해서 온라인 수업 등 언택트 관련 주식은 세계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언택트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단순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 온 기술의 진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로 보여진다. 비대면 소비 방식에서 출발한 언택트는 코로나 이후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여가를 즐기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목표를 ‘선도 국가’로 내세웠다. 코로나 방역에서 ‘1등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 대응에서도 세계 모범이 되어야 할 터인데,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는 언택트 산업이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한국 경제의 미래도 세계 언택트 산업의 최강자로 우뚝 설 혁신 기업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기고

홀로서기를 위한 함께 서기

을 돌보는 책임과 의무를 가족이나 보호의무자에게 거의 떠넘기고 있는데, 그들 또한 생계유지 활동으로 정신 장애인을 가족을 보살필 여유를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신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신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

‘당사자주의’라는 정신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실천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사자주의’는 정신 장애인 자신이 안고 있는 고생에 대처하는 일을 사회복지 시설이나 의료 전문가 혹은 가족에게 떠맡기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다운 고생을 되찾는 과정을 통하여 ‘삶의 주역’이 되려고 한다. 이런 의도를 가장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곳이 ‘베델의 집’이다.

베델의 집은 1984년 4월 일본 홋카이도의 우라카와 지역에 설립된, 정신 장애인들의 지역 생활 공간이다. 베델의 집은 원래 1978년 우라카와 적십자병원의 정신과를 이용하는 조현병 환자의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도토리회’ 활동에서 연유한 것이다. 자조 모임은 우라카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히타카 지역 특산물인 다시마를 포장 배송하는 경

제 활동을 통해 정신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보하려는 활동으로 확대됐다. 다시마 가공 판매에서 시작한 사업은 지금은 연 매출 1억 엔, 100여 명이 넘는 정신 장애인들이 일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

베델의 집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정신 장애인의 거주 공동체이자, 노동 공동체이며, 돌봄 공동체이다. 조현병을 비롯해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 대부분은 스스로도 그 병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그런데 베델의 집 사람들은 그 병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은 물론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관심과 배려로 장애를 넘어서려고 한다. 국가 복지·의료 서비스의 ‘관리와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장애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적극 직조하려는 것이다.

종래의 정신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에서 환경과 같은 증상은 숨겨거나, 약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델의 집에서는 환각이나 환청 등을 함께 생활하는 동료에게 말하고, 속사정을 나누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한다. 장애인 복지 연구자나 실천가, 정신의

료인, 국제정신의학회, 철학자 등이 베델의 집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신 장애를 질환이 아닌 개성으로 이해하고, 정신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생활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배려·니움을 통해 스스로 풀어 가려는 인간관계 형성,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 해결 역량에 주목하는 것이다.

베델의 집의 생활 방식은 정신 질환이 주는 고통을 서로 공감하고, 어려운 삶의 조건을 배려와 협력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생성 그 자체이다. 말하자면 ‘산다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당연지사의 새로운 실현 방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서로의 처지에 대한 관심과 감응에 연원을 두고 형성된 인간관계는 장애와 비장애, 사회복지 및 의료 전문가와 서비스 대상, 행정 관료와 서비스 이용자 등으로 나누는 소원한 관계를 해소한다.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정신 장애인 스스로의 문제 인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과 활용, 일과 노동을 통해 생활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적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본보기가 될 만하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